

“정권교체 가능한 정당 만들어 호남 민심에 응답하겠다”

신당 주자 인터뷰 ① 안철수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신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 폭풍으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와해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이룬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야권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당 바람의 진원지는 야권의 심장인 호남의 민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일보는 안철수, 전정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야권 재편의 당위성과 총선 승리 근거 등을 들어본다.



안철수와 호남

대학때 만나 결혼한 부인 김미경씨 순천 태생 창당 실무진·정치적 멘토 호남 출신 인사 많아

안철수 의원은 부인 김미경씨를 통해 호남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김씨는 순천 태생이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호남의 사위’란 말을 듣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씨를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가 만났다.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간 동아리 ‘카톨릭학생회’에서 만나 결혼에 이른 것이다.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에 다니면서 그날 내 공부만 하는 것에 대해(사회)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 봉사를 고민하다 보니 의대니가 진료봉사 활동을 생각했다”며 “그런데 진료봉사만 하는 데는 없고 종교 동아리가 봉사진료를 했고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카톨릭학생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 빚진 맘을 갖고 의료봉사 활동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며 웃었다. 김씨의 아버지이자 안 의원의 장인인 김우현씨는 여수에서 죽 사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숨졌다. 안 의원은 여수에는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처음으로 갔고 신혼여행 갈 때도 들렀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치권 결단이 필요할 때 잠시 들러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안 의원은 “지금도 아내의 친척 분들이 광주·전남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며 “형제와 이모님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사업적으로 호남과 인연은 별로 없었지만 호남 친구들은 많다”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향을 안 물어본다. 거기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2012년 대선캠프에도 호남 출신이 많았다. 안 의원은 “대선 캠프 때 정책 쪽은 투톱이 있었는데, 장하성·윤영관 교수님, 대변인이었던 유민영씨는 모두 호남 출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 정책·정치적 멘토의 일원이었던 김효석 의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통합 후 안 의원 측 최고위원을 맡았던 김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현재 신당 창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10인 모임의 핵심인 김경록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등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은 평소의 신중한 모습과는 다르게 시종일관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신당의 성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적 요구에 온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 호남 차별에 대해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거론할 때는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각오와 열망에도 야권 재편을 둘러싼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신당 세력과의 통합과 인재 영입, 혁신 공천, 야권 연대 등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그가 넘어야 할 높은 장애물이다. 그가 정치 혁신으로 야권 재편을 통한 총선 승리를 견인, 정권 교체에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탈당 밖에 길이 없었다.
▲사실 탈당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문 대표께서 혁신 전대가 아니더라도 당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제안이라도 받겠다는 정도만 말씀하셨더라면 탈당까지 가지 않았었다. 당일 기자회견장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 대표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결국 국회 정론관에서 손에 쥔 기자회견문을 보며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불과 2주전이다.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총선에서 무난하게 지고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 호남 민심에 응답하겠다.

-신당 바람이 거세다.
▲탈당하고 나서야 국민이 얼마나 간절하게 낡은 정치 청산을 바라고 있는지 깨달았다. 제가 큰 실망을 줘서도 불구하고 국민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말이 아닌 결과로 정치 혁신을 보여 드리겠다.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뤄내겠다.

-총선에서 100석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는데.
▲여권에서 이원집정부제 등 장기 집권을 거론하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다.

-총선에서 야권연대 없이는 지지층 분열로 필패가 불가피 하지 않나.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민심과 전체 유권자의 30%를 넘는 무당층을 단단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내겠다. 최근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를



새누리 200석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전국 정당 면모 갖추후 야권 신당 통합 추진 박지원 의원 거취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 경쟁에서 신당이 월등히 앞설 것이다. 연대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야권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광주의 원로 인사들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다. 이미 토대를 닦아 놓은 신당 추진 세력과 쉽게 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신당의 방향성과 전국 정당으로서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먼저 보이고 야권 신당 세력과의 통합을 나설 계획이다. -신당 세력과의 통합 방안은 ▲과거의 지분 나누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천 지분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를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당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신당의 동력을 삼아야 한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신당의 청사진은 ▲인재나 시스템 측면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근간을 갖추겠다. 여기에 합리적인 개혁 노선과 실행력을 갖추고 모든 판단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또, 사회 전반의 격차 해소를 신당의 중심에 두겠다. -신당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보장되나. 혁신 공천 방안은. ▲모두가 공감하는 혁신 공천이 원칙이다.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들도 경선에 동의하고 있다. 2월 초순 창당할 계획이니 경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안심번호제가 도

입된다면 경선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강하다. ▲잘 알고 있다. 참신한 인사들의 영입과 공천에 적극 나서겠다. 지난 27일 신당 기초를 발표하면서 30~40대가 주축이 되어 한다고 밝힌 것은 광주 등 호남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 호남의 정치 신인들도 많이 알고 염두에 두고 있다. 젊은 리더를 키우고 발굴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독일의 메르켈, 캐나다의 트뤼도, 영국의 캐머런 총리 등이 모범이다. 호남 정치 복원도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할 생각은 없는지. ▲탈당을 전제로 다른 당에 계신 분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호남 소외 근절 방안은 ▲태어난 지역으로 인사차별을 받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심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호남의 경제성 소외도 바로 잡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제대로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장기 집권이 이뤄지면 결국 국가가 망가진다. 민심의 심판을 담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낡은 진보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낡은 진보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변된다. 내 생각을 항상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을 틀리다는 것이다.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낡은 진보는 상대에게 패쇄주의로, 같은 진영에는 온정주의로 흘러 결국 이중 잣대가 된다. 성찰 없는 진보로 사회의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신당이 안철수 의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1인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 않다. 오해다. 기업의 대표 시절에도 수평적 리더십이 경영의 원칙이었다.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했었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안철수 개인 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를 함께 시작했던 분들과 좋게 헤어지지 못했다. ▲많이 복원했다. 언론에서 헤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금도 상의하고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후회하지 않나.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정치적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값진 교훈이다. -영남 공략은 자신이 있는지.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과 열망이 크다. 탈당하고 나서 전국을 순회했는데 부산 시민이 제일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p>클래식 ABW100_KE/OZ/LJR 푸켓 6일</p> <p>더 나카 오션뷰 풀빌라(2+2)</p> <p>총상품가 1,7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작선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p>	<p>클래식 AXW100_SQ/KE/QR-H 몰디브 6일</p> <p>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워드 풀</p> <p>총상품가 3,763,600원~</p> <p>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p>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여행비]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선택경비 고가의 선착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한 인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